

경남지역 신축 농가주택과 표준주택안의 건축적 특성에 관한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recently constructed houses in Kyongsangnam-do with standard housing plan

박 경 옥*
Park Kyoung Ok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offer the basic data concerning the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recently constructed farmhouses built by the residents' self-planning after 1987, compared with the standard housing plan, for the desirable farmhouse planning.

The 77 farmhouses, scattered in Milyang-gun, Yangsan-gun and Ulsan-gun near Ulsan city, were selected for the field measurement and the data, compared with the 14 standard housing plans, were analysed by the qualitative method.

The farmhouses studied here showed average size of 25-pyongs(82.5m²) and took the flat slab type of roof by the masonry construction of the red blicks. The characteristics in planning were ① the Anbang placed adjacent above the living room, ② a pare of double-sliding doors for the Anbang, ③ a pare of double-sliding doors between the living room and the yard for the openness of the living room, ④ a door between the living room and the kitchen, ⑤ the multiuse-room by the kitchen for supplemental use, and ⑥ the storage space as attics secured indoor.

The standard housing plans, different from those of the recently constructed farmhouses, placed emphasis on the separativeness of each space using the one hinged doors. The farmhouses built recently therefore were not affected by the charactersitics of the standard housing plans.

* 정회원, 울산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부교수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1970년대 초부터 시작된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農村住宅의 改善과 새로운 平面型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그 결과 농촌주택의 近代化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1978년부터 이전의 재래주택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인 標準住宅案이 제시되었다. 이들 표준주택안은 용자금혜택과 더불어 실적위주의 戶數증가를 보여왔으나, 표준주택안으로 건축된 주택에 대한 거주자들의 생활상의 불만과 용자금 상환에 대한 부담 등 반대적 요소가 급증하여 1987년부터 표준주택안의 보급이 중단되었다.

1987년이후에는 농민의 경제력 축적에 의해 거주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설계에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신축행위가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형태에 의해 건축되어진 주택은 표준주택안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각 공간의 배치 및 구성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민자유의사에 의한 신축주택과 표준주택안과의 건축적 특성을 비교하여 신축농가주택에 표준주택안이 끼친 영향을 살펴 봄으로써 도시주택과 구별되는 농가주택의 독자성을 명확히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체적인 목적으로는

- 1) 신축 농가주택의 주거공간을 분석하여 건축적 특성을 밝힌다.
- 2) 신축농가주택과 표준주택안의 건축적 특성을 비교하여 농가주택의 특성을 밝힌다.

2. 연구의 범위

1) 용어정의 - 본 연구에서 사용된 중요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농가주택 : 농촌지역에 위치하면서 농업을 전업 또는 겸업으로 하여 생활의 주된 수단으로 하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주택

· 표준주택안 : 정부가 효율적 주택개량을 위해 1978년부터 1983년 까지 보급한 평면

2) 연구의 제한점

(1) 신축농가주택의 지역적인 제한으로 경남 울산시 근교에 있는 밀양, 양산, 울산군을 대상으로 한다.

(2) 표준주택안은 1978-1983년에 보급된 입식부엌평면 14개를 대상으로 한다.

(3) 공간적인 제한은 살림채의 방, 부엌, 거실, 실내화장실, 보일러실, 다용도실, 다락 등으로 제한한다.

3. 연구의 방법

신축농가주택조사는, 울산시 근교에 있는 밀양군, 양산군, 울산군의 3개군의 군청을 방문, 신축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을 파악한 후 대상마을 중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신축주택을 모집단으로 하여 실측조사가능한 주택77호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거주자 면담도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1990년도 12월 18일- 12월 22일에 걸쳐 제 1차 본조사를 실시하였고, 제 2차 본조사는 1991년 7월 2일에서 7월 15일까지 실시하였다.

자료의 분석을 위해서는 SPSS 프로그램에 의한 빈도와 백분율의 기술통계를 이용하였다.

표1. 조사대상

단위:호수(%)

조사 지역		실 측 조 사
울산군	두동면	17 (22.0)
	두서면	10 (13.0)
밀양군	하남읍	27 (35.1)
양산군	물금면	23 (29.9)
계		77 (100.0)



그림1. 조사대상의 지역적 분포

II. 신축능가의 건축적 특성

1. 주택의 일반 사항

· 신축연도- 신축은 87년 이후 점차 늘어 가고 있으며, 기존주택의 노후화로 앞으로 점차 신축현상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2).

· 대지면적-대지면적은 91-130평이 33.8%로 가장 많으며 평균 145.6평으로 나타나 비교적 넓은 대지를 소유하고 있다.

· 살림채의 1층 면적-1층으로 된 주택이 73호, 미니2층으로 된 주택은 4호이며 2층의 공간은 수장공간으로 이용되거나 여분의 방으로 사용하였다. 1층일 경우 거주공간의 바닥은 지면에서 90cm높여 지하공간을 수장공간으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부분의 생활이 이루어지는 1층의 살림채만으로 제한하여 면적을 살펴 보면

표2. 조사주택의 신축연도·대지면적·살림채 1층 면적·건폐율

신축연도		1987	1988	1989	1990	1991	계			
f		7	8	15	35	12	77			
%		(9.1)	(10.4)	(19.5)	(45.5)	(15.6)	(100.0)			
대지면적(평)	평수	50 미만	50-90	90-130	130-170	170-210	210이상	계		
	f %	7 (9.1)	14 (18.2)	26 (33.8)	13 (16.9)	11 (14.3)	6 (7.8)	77 (100.0)		
살림채 1층 면적(평)	평수	20 미만	20-25	25-30	30-35	35-40	40이상	계		
	f %	19 (24.7)	36 (46.8)	18 (23.4)	3 (3.9)	.	1 (1.3)	77 (100.0)		
건폐율(%)	건폐율	10 미만	10--20	20--30	30--40	40 이상	계			
	f %	5 (6.5)	31 (40.3)	23 (29.9)	11 (14.3)	7 (9.0)	77 (100.0)			
살림채 1층 向	向	남향	남동향	남서향	북동향	북서향	북향	동향	서향	계
	f %	21 (27.3)	12 (15.6)	22 (28.6)	5 (6.5)	6 (7.8)	3 (3.9)	5 (6.5)	3 (3.9)	77 (100.0)

21-25명 사이가 46.8%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26-30명 사이에 거주하는 주택으로 23.4%를 나타냈다. 또 살림채의 1층 면적의 평균 평수는 24.3평인 것으로 나타났다.

· 건폐율-건폐율은 10-20% 사이가 40.3%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어서 대지에 비해 살림채의 비율이 낮다.

· 살림채의 向-주택에서 살림채 向은 정남향·동남향·서남향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71.5%로 여름의 통풍, 겨울의 채광, 관습상 북향을 회피하는 등의 이유로 남향에 대한 강한 선호경향으로 해석된다.

· 지붕의 형태-주택의 지붕의 형태는 97.4%가 평슬라브의 구조인데 이들은 이전 주택에서는 볼 수 없었던 옥상이라는 공간을 만들게 되며 대부분 옷의 건조행위나 장독대, 농기구를 보관하는 장소로 이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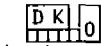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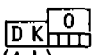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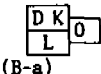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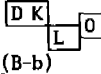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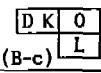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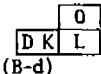
· 외벽의 재료-주택의 외벽재료는 1980년대 중반이전의 주택은 주로 화강석과 같은 석재를 사용하여 외벽의 앞면을 치장하였으나, 조사주택에서는 앞면을 벽돌로 치장한 경우가 94.8%였으며 외벽의 뒷면은 시멘트로 마감한 후 색으로 치장을 하였다.

2. 살림채의 평면적 특성

평면유형은 신축 주택의 살림채 공간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안방과 새로운 공간인 거실, 설비의 개선으로 변화가 뚜렷한 부엌겸 식당의 관계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독립된 거실이 없이 마루의 형태로 된 A형과 독립된 거실이 있는 B형으로 나누었다.

표3. 살림채의 유형분류

유형	D·K·L·O의 관계	f	%
A형	 (A-a)	3	3.9
	 (A-b)	1	1.3
B형	 (B-a)	9	11.7
	 (B-b)	20	26.0
	 (B-c)	33	42.8
	 (B-d)	11	14.3
계		77	100.0

<참고 : D·K는 부엌겸 식당, L은 거실, O은 안방 >

① A형

대부분 살림채의 면적이 좁으며 (18평 이하) 이전의 주택의 규모와 거의 차이가 없이 건축되었으므로 室구성 및 배치가 단순하다. 마루는 각실의 앞에 있는 빛마루와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고 적은 면적을 확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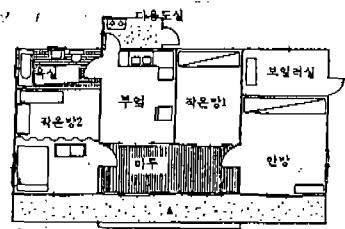


그림 2. A-a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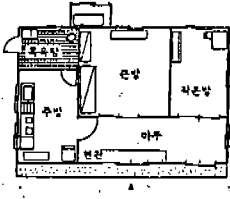


그림 3. A-b형

② B형

가) 부엌 겸 식당과 거실이 上·下 일직 선상에 있고 안방이 側面에 위치한 경우 (B-a 형)

일반적으로 거실과 부엌 겸 식당이 전·후 일직선상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 비밀 상적 생활에서의 각공간의 轉用性을 강화 시키는 평면이다.

부엌과 거실사이에 출입문이 있는 경우는, 집안의 큰일을 치를때 그 문을 제거 또는 개방하여 넓은 하나의 가사공간 내지는 손님접대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부엌과 거실의 독립적 기능을 가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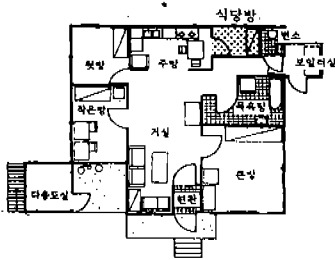


그림 4. B-a형

나) 부엌 겸 식당과 거실이 대각선상에 있고 안방이 側面에 위치한 경우 (B-b 형)

부엌과 거실이 서로 보이지 않게 위치하고 있으며 대부분 부엌 옆에 욕실 겸 화장

실이 인접하여 있고, 안방과 제 2,3의 방이 側面에 위치한다.

각방 문의 형태는 외여단이문이 대부분이며 이러한 평면은 각실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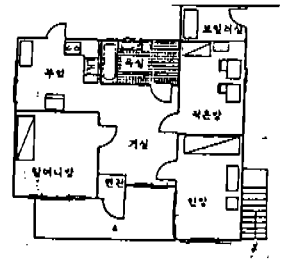


그림 5. B-b형

다) 부엌 겸 식당과 거실이 대각선상에 있고 안방이 거실後側에 위치한 경우(B-c 형)

조사 주택의 42.8%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경향을 보이고 있는 유형으로 안방과 거실이 주택 평면의 중앙에 위치하여 한 공간의 연속선상에 놓이게 된다. 부엌 겸 식당, 욕실 겸 화장실과 기타의 방들은 側面에 위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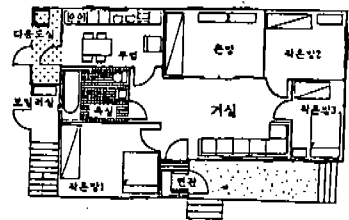


그림 6. B-c형

라) 부엌 겸 식당과 거실이 左·右 일직 선상에 위치하고 안방이 거실 後側 正面에

위치한 경우(B-d型)

이 평면은 B-c型과 같이 거실과 안방이 上·下의 일직선상에 놓여 그 주택의 중심적 공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자연히 부엌은 側面에 위치하게 된다. 또 이러한 형태는 부엌과 거실이 左·右로 일직선상에 놓이게 되므로 거실은 손님접대와 가족 단란의 기능과 식사공간, 비일상적 생활에서의 가사보조공간(음식만들기, 음식보관)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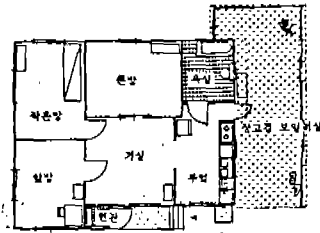


그림 7.B-d형

안방 전면에 거실이 위치하여 上·下 일직선상의 형태를 갖춘 平面(B-c, B-d)은 특히 일반 忌祭祀나 茶禮時 안방과 거실이 轉用性이 강화되어 커다란 하나의 祭禮空間으로 사용되고, 다른 비일상적인 생활에 있어서도 轉用性이 강화되어 사용되는 예가 많다. 이러한 형태에서는 안방의 문이 모두 네짝미서기 문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따라서 안방의 위치와 안방문의 형태는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되며 이것은 거주자의 생활상의 요구가 주택설계시 반영된 것으로 해석되어 진다.

3. 살림채내 각 공간의 특성

살림채내 공간은 세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새로운 시설 설비의 변화를 빨리 받

아들여 편리와 능률을 추구하는 공간으로 부엌, 욕실, 변소 등의 서어비스 공간이다. 현재 정부의 개량 용자 보조의 중점 공간으로 주민의 개조 희망도 높은 공간이다. 둘째는 고유의 공간 성격을 강하게 가지며, 외부의 영향에 의한 변화가 적고 전통적 관념이 남아있는 공간으로, 안방, 건너방, 사랑방, 대청, 뒷마루 등이다. 셋째는 각 공간의 보조공간으로써 실을 상호간에 연결해주는 현관 및 복도, 수납저장을 위한 다락, 보일러실 등이다.

각 실의 주택내에서 차지하는 평균면적의 비율을 살펴보면, 거실이 주택내에서 21.0%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나, 거실이 독립된 실이 아니므로 통행부분까지 포함된 것이며, 실제적으로 안방의 면적 비율이 가장 높고, 제2의 방, 부엌, 제3의 방, 욕실 순이었다(표4).

표4. 안채에 대한 각실의 비율 및 평균면적

구분	안방	제2의 방	제3의 방	거실	부엌	욕실	기타	계
*	17.4	15.2	11.2	21.0	13.4	5.7	16.1	100.0
평균(m ²)	14.0	12.2	9.0	16.9	10.8	4.8		
표준편차	3.9	3.7	3.6	7.9	3.0	1.4		

A) 거주공간

① 안방·기타방

거주자 호칭에 의한 안방이 살림채 平面內 거실 後側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조사 대상 중 57.1%였으며, 거실 側面에 위치한 경우가 42.9%였다. 면적과 안방과의 관계에서 보면 면적이 제일 크면서 안방이라고 불리워지는 경우가 72.1%였으며, 안방의 면적의 평균은 14.0m² 이었다. 안방문의 형태에는 여닫이가 32.1%, 네짝미서기문이 64.1%, 두짝미서기문이 3.8%이다. 농촌주택에선 아직까지 개방성을 살린 네짝 미서기문이 보

편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안방이라고 부르는 방 이외의 나머지 방 중 면적이 큰 제2의 방의 면적은 10-15㎡미 만에 67.2%가 집중되어 있다. 제3의 방은 자녀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평균 9㎡로 나타났다.

② 居室

자유 설계에 의해 신축된 주택의 특징 중의 하나는 거실의 위치가 현관과 연결되어 주택의 전면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

외부로 향하는 거실문의 형태는 네짝미서기문이 88.5%, 두짝미서기문 11.5%로서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으며 이는 여름에 거실에서 밖으로 출입할 때 또는 물건의 반입편리하도록 되어 있어 거실은 마당과의 개방성이 높게 되어 있다.

거실 바닥재료는 겨울에도 바닥 난방이 가능하며 생활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비닐수지(모노름)가 83.3%로서 우세하게 나타났다. 마루를 깔 경우도 16.9%정도 있었다.

B) 서어비스 공간

① 부엌

부엌의 형태는 모두 입식부엌이며, 거실에서 부엌으로 향하는 출입구의 존재여부를 살펴본 결과, 거실에서의 부엌 출입문이 있는 경우(62.3%)가 더 많으며, 부엌문은 외여닫이문이 (38.9%)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두짝미서기문(23.4%)이었다.

부엌 바닥재료는 전 가구가 비닐수지(모노름)이다.

② 多用途室 및 食堂房

부엌겸 식당에 딸린 공간은 물사용공간과 수장공간의 두형태로 나타나는 데, 한 형태인 다용도실은 부엌 겸 식당과 10-20cm의 段 차이를 두고 주로 상·하수도 시설을 갖추고 있다(그림6의 다용도실).

다른 형태는 식당방으로 부엌 겸 식당 옆에 段 차이가 거의 없이 하나의 방이 덧붙여져 있고 이것은 대부분 곡물 및 식기를 보관하거나 잔치때 음식을 보관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4.B-a형의 식당방).

③ 浴室 겸 化粧室

주택에 따라 화장실이 실내에 있는 경우가 63가구(81.8%)이고 그중 외부에 중복적으로 화장실을 설치한 경우가 71.4%이며, 나머지 19.2%는 외부화장실만을 두었다. 신축 농가주택은 실내에서 배설의 기능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보이며 외부화장실의 존재가 이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화장실이 실내에 있는 경우에도 도시주택과 같이 세면기, 욕조, 변기가 같이 있는 경우는 54.5%였고, 세탁이나 가사를 위한 물사용 공간으로서 사용하는 경우(5.2%)도 있어서 화장실의 크기에 따른 시설의 배치는 각 가정의 필요에 의해 정해지고 있었다(표5).

표5. 욕실의 구성요소

구 성	f	%
위생시설 없음	4	5.2
변 기	3	3.9
세면기+변기	2	2.6
변기+욕조	15	19.5
세면기+욕조	11	14.3
세면기+욕조+변기	42	54.5
계	77	100.0

C) 보조 공간

① 현관

현관의 형태는 주택 전면에서 들출하여 별도의 공간으로 구성된 경우가 57.1%로 높

았으며 거실의 일부로서 내부로 들어간 형도 비율이 40.3%로 높았다. 현관과 바닥이 높은 거주공간(거실 또는 복도)과의 사이에 내부현관문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68.8%). 현관과 실내 바닥차는 11-20cm의 범위가 76.7%로 대부분을 차지해 현재 도시주택에서 실내와의 바닥차가 10cm내외로 되는 것에 비해 높았으며 마당에서 재래 마루로 올라서는 개념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② 다락

농가주택의 특징은 큰 창고를 비롯해서 작은 규모의 다용도실, 식당방, 보일러실, 다락 등을 이용하여 여러가지 곡물이나 식기를 보관 할 수 있는 수납공간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 것이다.

그 중의 하나인 다락의 경우를 보면 주로 천정의 높이를 낮게 할 수 있는 욕실 겸 화장실이나 부엌 겸 식당의 윗쪽에 설치하게 되는데, 이 경우는 계단을 두고 출입이 가능한 문을 두는 경우와 사다리를 놓고 출입하는 2가지 형태를 취하게 된다. 후자의 경우 출입이 용이하지 않게 되므로 일상적인 생활에서 자주 쓰이지 않는 식기나 곡물 저장 등에 이용되고 있다.

전가구의 46.8%를 차지하는 32가구가 다락공간을 갖고 있었으며, 욕실천정 상부에 다락이 있고 부엌내에 출입구가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이는 부엌이 작업공간으로

서의 특성때문에 수장물건과 비밀상적인 가사용품을 보관하는 곳으로 이용된다고 본다(표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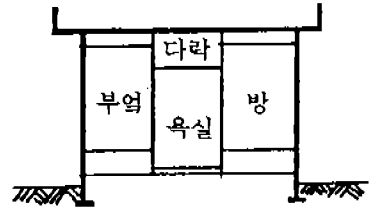


그림8. 다락의 위치

③ 보일러실-기름보일러의 보급으로 조사 대상 주택 全戶가 보일러실을 갖추고 있다. 보일러실은 규모에 따라 크게 2가지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

한 형태는 작은 규모의 보일러실로서 보일러가 설치되고 나면 공간의 여유가 없어 收藏은 거의 이루어 지지 않고 보일러만을 설치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살림채의 외벽과 담사이의 공간을 이용하여 만든 비교적 큰 규모의 수장공간을 만들어 그 안에 보일러를 설치하는 형태 즉, 창고 겸 보일러실을 겸용하고 있는 형태이다.

Ⅲ. 신축농가주택평면과 표준주택안의 비교

1. 표준주택안

1970년대 전후부터 시멘트 증산과 블록제작의 기술보급으로 농촌주택은 시멘트블록을 이용한 조적조 주택으로의 변화와 더불어 정부의 새마을 사업의 일환인 농촌개량 사업의 초기에는 지붕, 부엌 또는 변소의 부분개량으로 시작되어 농촌주택의 전면개량으로 발전되었으며 76년 이후에는 '농촌취락 구조개선'이라는 차원으로 확대발전되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의 초기단계에서 수

표6. 다락의 위치 및 출입장소

구분	f	%
욕실위에 위치/부엌으로 출입	24	75.0
방 위에 위치 /방으로 출입	5	15.6
욕실위에 위치/방으로 출입	3	9.4
계	32	100.0

립한 목표는 구체적인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단순한 정책적 물량계획으로서 1978-1986년의 9년간을 사업기간으로 하고 총 36만동의 농촌주택을 개량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농촌 불량주택을 전수 조사하여 1, 2, 3차 수정을 거쳐 계획변경이 있을 때마다 목표물량 및 사업기간이 변화하여 87년말 현재 32만5천동으로 초기 목표의 57%에 지나지 않는다.

이기간내에 정부는 지도의 효율·주택의 질적 향상·건설경비의 절약을 목표로 표준주택안을 제시하였고,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주어져 표준주택안에 의한 주택 건축이 활발히 일어나게 되었다.

표준주택안은 15-25평규모로 78년도 12안, 79년도 2층형 3안, 80년도 각도별 평칭의 19안, 82년 6안, 83년 10안의 총 50안이 제시되었다. 표준주택안은 이전의 재래주택과는 근본적으로 공간구성의 차이를 가지고 있으며 농촌주택의 현격한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표준주택안은 거주자의 요소를 고려하지 않아 생활에 부적합한 점이 노출되고 이에 대한 불만으로 표준형 농촌주택의 평면을 주민들의 생활요소에 맞게 수정하려는 경우가 나타났다.









2. 표준주택안과 신축주택의 평면 비교

(1) 평면유형 비교

주민의 자유설계에 의해 신축된 농가주택 평면이 정부가 제시한 표준주택안과는 어떤 相異性이 있는지 두 형태의 평면을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한다.

표준주택안은 1978년부터 1983년도까지 보급된 案중 입식부엌형태의 농촌형 14종류를 비교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표7 신축농가 주택과 표준 주택안과의 평면적 유형분류

유형	D·K·L·O의 관계	신축주택	표준주택안
		f(%)	f(%)
A형	 (A-a)	3 (3.9)	
	 (A-b)	1 (1.3)	
B형	 (B-a)	9 (11.7)	5 (35.7)
	 (B-b)	20 (26.0)	5 (35.7)
	 (B-c)	33 (42.8)	
	 (B-d)	11 (14.3)	
	 (B-e)		2 (14.3)
	 (B-f)		2 (14.3)
계		77 (100.0)	14 (100.0)

<참고 : D·K는 부엌 겸 식당, L은 거실, O은 안방 >

표준주택안의 평면은 대부분 B-a, B-b형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형태는 각 방이 모두 측면에 위치하게 되고 문의 형태가 외여닫이문으로서 비일상적인 생활에서의 轉用性에 대한 계획은 약화되고 일상적인 생활에 있어서의 독립성의 확보를 증시한 평면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표준 주택안에서는 신축주택에서 많이 나타난 비일상적인 생활의 요구로 인한 부엌과 거실, 거실과 안방의 전용성이 고려된 평면 (A-b, B-c, B-d)은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다.

(2) 각 실의 관계 및 형태에 대한 비교

세부적인 각실의 관계 및 문의 형태에 대한 비교는 표8과 같다.

표8 신축 주택과 표준 주택안과의 세부적 사항 비교

	표준 주택안		신축주택 (N=77)				
	3개	4개	2개	3개	4개		
방 수	4 28.6	10 71.4	8 10.4	60 77.9	9 11.7		
실 구성수	5개	6개	7개	6개	7개	8개	9개
		9 64.3	5 35.7	10 10.3	33 48.5	24 24.3	13 16.9
안방의 위치	거실 상하 연결형	측면	거실 상하 연결형	측면			
		14 100.0	45 58.4	32 41.6			
안방문의 종류	외여닫이 문	두락 미서기문	외여닫이 문	미서기문	내락 두락		
	11 78.6	3 21.4	25 32.5	49 63.6	3 3.9		
부엌겸 식당 위치	거실 상하 연결형	측면	거실 상하 연결형	측면			
	5 35.7	9 64.3	12 15.6	65 84.4			
화장실의 위치	거실 후면	측면	거실 후면	측면			
	71.4	28.6	36.4	63.6			

표준 주택안에서의 방은 대부분 4개로 구성되어 있고 현관, 거실, 욕실 등의 매우 단순한 평면형을 나타내고 있다. 신축주택의 구성 요소는 방은 대부분 3개 인것(77.9%)으로 나타났으며, 욕실 겸 화장실, 부엌 겸 식당, 보일러실, 작은 창고, 다용도실, 다락 등의 다양한 실의 구성을 보이고 있다. 표준주택안의 경우 농가주택의 필요 공간인 살림채와 연결된 수납공간의 배려로 다용도실, 실내창고, 반침등에 대한 계획이 5사례에서 나타났다.

안방의 위치는 표준 주택안의 경우 안방이 대부분 거실의 측면에 위치하고 있으나 신축주택의 경우 거실이 전면에 오고 후면에 안방이 위치한 상하 일직선의 형태를 갖춘 경우도 58.4%로 나타났다. 이것과 관련하여 안방문의 형태도 특징적인 차이점으로 나타났다. 표준 주택안의 경우 외여닫이문의 형태가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조사

지역에서의 안방문의 형태는 67.5%가 미서기문인것으로 나타났다.

안방문이 미서기문의 형태를 취하게 된 것은 크게 생활의 측면에서의 요구와 이전 주택의 안방문에 대한 전통성의 잔존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안방과 함께 거실이 가족의 중심공간으로서 확대되고 비일상적인 생활을 위해 큰 공간이 필요하게 됨으로써 미서기 문을 열어 거실과 함께 하나의 큰 공간으로 전용하고자 하는 요구이다. 이것은 거실과 안방이 상·하 일직선 상으로 정면에 놓이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신축주택에서는 부엌 겸 식당이 마루나 거실 뒷면에 위치하여 거실에서 보이는 형태 (A-a, B-a)는 15.6%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즉, 84.4%는 부엌겸 식당이 모두 측면에 위치한다. 욕실 겸 화장실의 경우에 있어서도 측면에 위치한 경우가 63.6%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상과 같이 표준 주택안과 주민의 자유 설계에 의해 건축되어진 신축주택의 평면과는 많은 다른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두 형태에서 보여주는 평면상의 차이점은 거주자가 요구하는 형태를 유추할 수 있게 하여준다.

IV. 결 론

농민들이 자신들의 자유 의사와 경제력에 의해 건축한 농가주택과 표준주택안의 건축적 특성을 비교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1) 형식- 신축 농가주택의 규모는 25평 정도이며 이것은 농민의 경제력 및 세금감면 혜택과 관계가 있다. 붉은 벽돌 조적조 구조와 지붕 위부분을 건조공간으로 쓰는 평

슬라브 지붕이 한 유형으로 자리잡고 있다. 표준주택안은 입식부엌의 경우 15-25평까지 평수가 다양하며, 기와를 사용한 경사지붕이다.

(2) 평면- 신축주택의 평면상의 특징은 전면 현관 설치와 거실을 통해 각 방으로 이동하는 형식이며, 거실 후면에 안방이 배치되어 안방과 거실이 상하로 이어지며, 안방 전면에 4짝 미서기문을 설치하는 유형이 정형화되어 있다. 거실은 마당에 접한 면에 4짝 또는 2짝 알루미늄 샷시 미서기문이 일반적으로, 마당을 쉽게 관찰 할 수 있도록 개방성이 높게 되어 있다.

표준주택안도 거실중심형이나 안방과 거실의 위치는 상하 연결성이 없으며, 각방의 문은 외여닫이문으로 실의 독립성이 강화되어 있다.

(3) 서어비스공간

· 욕실 겸 화장실 - 표준주택안은 화장실이 전통적인 세정과 배설의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욕조, 세면대, 변기로 구성되는 것에 비해, 신축농가주택내의 욕실 및 화장실은 외부에 화장실을 배치시키는 경우가 많아 실내에서의 배설의 기능을 축소시키고 세정의 기능과 함께 물을 쓰는 다용도실의 개념이 함께 들어가 있다.

· 부엌 및 부엌에 접속된 보조공간 - 신축주택은 입식부엌이며, 식탁도입으로 식사를 위한 공간이 겹쳐져 도시주택의 DK(Dinning Kitchen)와 같은 기능을 갖고 있다. 그러나 부엌과 연계된 공간이 물의 사용이 가능한 가사보조공간으로서의 다용도실과, 부엌과의 단 차이가 없이 부엌옆에 덧붙여져 곡물 및 식기를 수납하거나 음식을 보관하는 역할을 주로 하는 식당방의 형태로 나타난다. 표준주택안에서는 소수의 예에 다용도실이 설치되어 있다.

(4) 수장공간

신축주택에는 다락이 필수적으로 나타나

고 보일러실 또한 창고와 겹하여 나타나는 경향도 보인다. 표준 주택에서는 불박이장형태의 반침이 있으며 수장공간에 대한 계획이 부족하다. 신축주택은, 표준주택안과 거실중심형 계획에서는 유사하나 농가주택생활을 효율적으로 수용해나갈수 있도록 안방의 위치와 안방문의 형태의 정형화, 부엌의 개방에 대한 저항, 내부화장실의 배치와 외부화장실의 잔존, 여러 수납공간의 설치등의 부분적인 보수성을 유지하여 표준주택안과는 다른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농가주택은 그들의 생활의 이해에 바탕을 둔 계획으로 도시주택과는 다른 그들 나름의 특성이 살아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참고 문헌

1. 강 영 환 (1987). 한국 농촌주거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대한 건축학회는 문집, 제3권 6호, pp.45-56
2. 건 설 부 (1984). 표준설계도서
3. 김 홍 식 (1987) 민족건축론, 서울 한길사
4. 박 경 옥 (1988). 韓國農村住宅の平面構成に関する研究. 博士學位 論文, 大阪市立 大學校 大學院.
5. _____ (1987). 농촌개량주택의 평면구성에 관한 연구1,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3권3호, pp115-123
6. 박 정 은 (1989). 농촌 주거환경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제7권 1호, 한국 여성개발원.
7. 이 정 환 (1991). 농촌생활과 주거환경. 한국농촌생활 과학회지 2권. 한국농촌생활 과학회.

